

가족의 정서적 환경과 어머니의 훈육방식 및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김 혜 경(Kim's 아동가족상담센터) · 김 영 희(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I. 서론

인간의 발달은 유기체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동들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환경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스스로 발달을 주도해 나간다. 아동들이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 경험의 폭이 넓어지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기본적인 인간의 정서를 인식하고, 타인과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정서조절능력의 일부는 생물학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지만(Fox & Davidson, 1988), 사회적·문화적 과정에 의한 영향력이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정서의 사회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즉, 과거에는 정서를 생물학적·개인적·주관적·내적 상태로 인식했지만(Campos & Campos, 1989), 최근에는 정서를 사회적 맥락과 관계 속에서 발달하는 것으로 보는 정서 사회화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김미순, 2006; 임형아, 2004).

아동기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영아기부터 시작된 정서조절 방법을 내면화하는 시기라서, 이 시기의 정서조절능력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정서조절에 밑바탕이 될 수 있다(임희수, 2001). 특히 학령기는 부모와의 정서 관련 반응이나 행동이 상황적으로 표면화되는 시기라고 밝혀져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Eisenberg, 1996).

최근 들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또래간 인기도, 학교 적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강지훈, 2004; 노서연, 2003; Fabes, Eisenberg, Hanish, & Spinrad, 2001; Garner & Estep, 2001)로 인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또한 정서조절능력을 성공적으로 발달시키지 못하는 아동은 사회적 적응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우수경·최기영, 2002; Denham, 2001), 문제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박서정, 2005; Catrin, Rutger, & Roy, 2005)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을 위한 양육환경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관한 초기연구들은 아동의 성별과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성별에 따른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여아는 남아보다 문제중심적 대처와 감정발산을 보이는 경향이 높으며, 남아는 여아보다 공격적 표현과 회피, 왜곡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임희수, 2001; Fabes & Eisenberg, 1992). 아동의 연령에 따른 정서조절능력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조절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더 정교한 정서발달을 보인다고 밝혀졌다(김지현, 2003; 김지현 · 이순형, 2004; Coie, Dodge & Kupersmidt, 1990).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어머니의 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되었다(최규련, 1994). 이렇게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학자들은 정서조절능력이 단순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의한 영향보다는, 이러한 변인들과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아동이 나타내는 정서표현이나 정서조절방식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성차를 반영함과 동시에, 자라면서 그 아동들이 속한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회화되어져 나타나는 복합적인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임희수, 2001; 황정희, 1997).

아동이 속한 여러 환경 중 가족환경은 아동에게 가장 밀접한 환경으로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이다(이동희, 2004; Cummings, Simpson, & Wilson, 1993). 특히 가족의 정서적인 환경은 부모의 양육방법과 가족생활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므로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 및 정서조절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양순임, 2000; Gonzales, Tein, Sandler, & Friedman, 2001).

가족의 정서적 환경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가족의 정서표현은 아동이 타인의 정서적 반응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떤 정서가 적절하고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서조절능력에 연관된다고 보고 되었으며(Dunsmore & Karn, 2001; 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 가족의 온정적인 정서지지는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건설적인 문제해결능력에 중요한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진미화, 2007; 안혜숙, 2007). 아동이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나 행사 등을 통해 다양한 정서 교류를 하는 것은 아동 두뇌의 정서회로를 안정되게 발달시킨다는 연구결과(문용린, 1996)는 가족행사 나누기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또한, 감정이입이 떨어지는 불안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란 아동은 훗날 대부분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져(Jenkins et al., 2005), 가족과 관련된 불안이 아동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리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모간의 갈등은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이 공격성(박혜영, 2007; Jenkins et al., 2005), 비행 · 반사회적 행동(김윤희, 2007; Jenkins et al., 2005)과 같은 외현적인 문제와 불안 · 위축 · 회피(이선희, 2007; 김정란, 2004; Grych, Harold, & Miles, 2003; Jenkins et al., 2005) 등의 내면적인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들의 정서를 잘 조절하여 가족 내의 불안이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경우, 이는 아동의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고, 자녀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 모델이 되어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혀졌다(이선희, 2004).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가족의 정서표현, 정서지지, 가족행사 나누기, 가족불안, 부모갈등 등과 같은 가족의 정서적 환경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런데 최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어머니의 훈육방식에 대한 영향에 의해 설명력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보고 되기 시작했다. 즉, 훈육방식은 부모됨의 심리적 측면을 나타내는 양육태도의 개념과는 달리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어떻게 통제하는

가는 자녀의 정서조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윤희진·민혜영, 2006; Raffaelli, Crockett, & Shen, 2005).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훈육방식은 자녀의 충동통제, 자기통제, 정서조절을 향상시키는 반면, 신체적 처벌, 복종 강요, 거부적, 권위적 훈육방식은 아동의 정서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아동이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나타낸다고 밝혀졌다(김민정·도현심, 2001; 이경님, 2001; Soward & Kathy, 2006). 이렇게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이 밝혀졌지만, 이 세 가지 변인들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관련된 기존연구는 정서조절능력을 주로 학습적인 측면에서 다루거나(Pintrich, 1989; Zimmerman, 1990), 정서조절을 단순히 긍정적·부정적 측면만으로 이분화시켜 살펴본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Shields & Cicchetti, 2000; 박성연, 2002). 하지만 정서조절에는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개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다 다차원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Hawley & Vaughn, 2003).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정서조절능력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여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즉, Bronson(2000)은 정서조절능력을 사회적/정서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인지적 자기조절, 자기조절 동기의 4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임희수(2001)는 문제중심적 대처, 감정폭발, 공격적 표현, 회피의 4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박서정(2005)은 정서조절전략을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회피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의 5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들의 공통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정서조절능력이 주로 문제중심적 대처 및 친사회적 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회피적 행동, 감정발산 등으로 다차원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서조절능력 유형(문제중심적 대처, 감정폭발, 공격적 표현, 회피)에 따라 살펴보아 아동의 정서조절에 대한 조기 개입의 방안을 탐색해보고, 부모교육 프로그램, 학교교육, 아동·가족 상담현장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 소재의 4개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아동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는 질문지 조사방법으로 연구자가 초등학교 각 학급을 직접 방문하여 담임교사와 아동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 방법을 설명한 후에 연구자와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설문지를 실시하여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문항의 이해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질문지 작성상의 문제점과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총 73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07년 9월 15일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 내용을 수

정·보완하여 완성된 질문지로 2007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총 3일간 시행되었다. 총 953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된 자료 11부와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45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897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가족의 정서적 환경

가족의 정서적 환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Tavitian, Lubiner, Green, Grebstein, 그리고 Velicer(1987)가 제작한 Family Functioning Scale(FFS)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수정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본래 총 40문항으로 정서표현, 정서지지, 가족불안, 가족갈등, 가족의 행사 나누기 등의 5개 하위 척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의 결과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정서표현, 정서지지, 가족불안, 가족행사 나누기 등 4개 요인만을 추출하여 사용하였고(총 32문항), 가족갈등은 부모간의 갈등으로 측정하였다. 부모 갈등은 Porter와 O'Leary(1980)의 O'Leary-Porter Scale을 번안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측정하였다(총 10문항). 이 척도는 4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4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어머니의 훈육방식

어머니의 훈육방식은 Judith와 Christopher(2002)가 사용한 PDI(The Parenting Dimension Inventory)를 진순옥(2002)이 번안·수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척도, 즉, 지지적 훈육방식, 행동통제적 훈육방식, 심리통제적 훈육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4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임희수(2001)가 선행 연구(Eisenberg et al., 1994; 염현경, 1998; 정원주·윤종희, 1997)를 바탕으로 중기 아동기에 부합하도록 개발한 29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Eisenberg(1993)가 사용한 13가지 아동 정서조절방식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본래 2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 부하량이 낮은 3문항을 제외하고 총 2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 척도 즉, 문제중심적 대처, 감정폭발, 공격적 표현, 회피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4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자료분석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변 인	구 분	빈도(%)	변 인	구 분	빈도(%)
성 별	남 아	472(52.6)	학 년	4학년	444(49.5)
	여 아	425(47.4)		6학년	453(50.5)
	계	897(100.0)		계	897(100.0)
형제 유무	유	842(94.1)	가족 형태	핵가족	774(86.4)
	무	53(5.9)		대가족	122(13.6)
	계	895(100.0)		계	896(100.0)
부 연령	40세 이하	273(31.4)	모 연령	40세 이하	570(65.4)
	41세~45세	418(48.1)		41세~45세	249(28.6)
	46세 이상	178(20.5)		46세 이상	52(6.0)
	계	869(100.0)		계	871(100.0)
부 학력	중졸이하	9(1.1)	모 학력	중졸 이하	10(1.2)
	고 졸	261(30.9)		고 졸	359(42.6)
	대졸이상	574(68.0)		대졸 이상	473(56.2)
	계	844(100.0)		계	842(100.0)
부 직업	전문직/공무원	168(19.5)	모 직업	전문직/공무원	123(14.1)
	회사원/사무직	280(32.6)		회사원/사무직	99(11.4)
	자영업/서비스업	250(29.1)		자영업/서비스업	199(22.8)
	생산/기술/노무직	162(18.8)		생산/기술/노무직	52(6.0)
	계	860(100.0)		주 부	399(45.8)
			계	872(100.0)	

2.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 및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회귀분석에서 VIF값을 살펴 본 결과 1.00에서 2.09의 범위로 3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어 각 변인들은 독립적인 개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②	-.03														
③	.05	-.07*													
④	.15***	-.16***	.27												
⑤	.09**	-.04	-.01	.47***											
⑥	-.01	-.11**	.01	.47***	.45***										
⑦	.03	-.05	-.02	.20***	-.13***	.16***									
⑧	-.04	.05	.02	-.13***	-.42***	-.22***	.27***								
⑨	.17***	-.12**	.01	.62***	.57***	.50***	.12***	-.19***							
⑩	-.14***	.05	.07	-.12***	-.42***	-.06	.32***	.51***	-.19***						
⑪	.04	-.07*	.01	.49***	.44***	.45***	.15***	-.21***	-.58***	-.16***					
⑫	.11**	-.16***	.01	.64***	.42***	.46***	.19***	-.06	.58***	-.04	.52***				
⑬	.23***	.07*	.02	.01	-.28***	-.12***	.29***	.42***	-.04	.43***	-.07*	-.02			
⑭	.02	.03	-.01	-.04	-.27***	-.07*	.22***	.37***	-.09**	.35***	-.05	-.03	.49***		
⑮	.05	.28***	-.01	-.16***	-.34***	-.19***	.19***	.40***	-.19***	.36***	-.08*	-.15***	.50***	.48***	
평균	*	*	2.81	2.23	3.27	3.05	1.93	1.45	2.44	1.82	2.81	2.39	1.60	1.83	1.79
표준 편차	*	*	.48	.71	.55	.56	.51	.42	.68	.54	.76	.57	.47	.57	.55

*p<.05, **p<.01, ***p<.001

- | | | |
|------------|------------|------------|
| ① 성별 | ② 학년 | ③ S.E.S |
| ④ 정서표현 | ⑤ 정서지지 | ⑥ 가족행사 나누기 |
| ⑦ 가족불안 | ⑧ 부모갈등 | ⑨ 지지적 훈육 |
| ⑩ 심리통제적 훈육 | ⑪ 행동통제적 훈육 | ⑫ 문제중심적 대처 |
| ⑬ 감정폭발 | ⑭ 공격적 표현 | ⑮ 회피 |

*이분변인(dummy variable)으로 분석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지 않았음.

1)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학령기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을 독립변수로,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3단계를 실시하였다. Model 1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아동의 성별, 학년,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Model 2에서는 Model 1에 가족의 정서적 환경의 하위요인인 정서표현, 정서지지, 가족행사 나누기, 가족불안, 부모갈등을 추가하여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Model 3에서는 Model 2에 어머니 훈육방식의 하위요인인 지지적 훈육, 심리통제적 훈육, 행동통제적 훈육을 추가하여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Model 1에서 아동의 성별($\beta=.09, p<.01$)과 학년($\beta=-.16, p<.001$)이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델은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를 3.6%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보다 문제중심적 대처가 높게 나타났다.

Model 2에서는 아동의 학년($\beta=-.06, p<.05$), 정서표현($\beta=.47, p<.001$), 정서지지($\beta=.15, p<.001$), 가족행사 나누기($\beta=.17, p<.001$), 가족불안($\beta=.08, p<.01$), 부모갈등($\beta=.09, p<.01$)이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델은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를 46.5% 설명해 주고 있다. 즉, 6학년보다 4학년이, 가족 간의 정서표현이 많을수록, 가족 간의 정서적인 지지가 높을수록, 가족과의 여가활동이나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가족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아동 앞에서 보이는 부모 간 갈등이 높을수록 아동이 문제중심적 대처를 더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Model 2에서는 Model 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아동의 성별은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투입한 가족의 정서적 환경의 하위변인은 모두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의 전체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Model 3에서는 아동의 학년($\beta=-.06, p<.05$), 정서표현($\beta=.35, p<.001$), 가족행사 나누기($\beta=.10, p<.01$), 부모 갈등($\beta=.08, p<.01$), 지지적 훈육($\beta=.19, p<.001$), 행동통제적 훈육($\beta=.19, p<.001$)이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델은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를 51.9% 설명해주고 있다. 즉, 6학년보다 4학년이, 가족 간의 정서표현이 많을수록, 가족과의 여가활동이나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동 앞에서 보이는 부모간의 갈등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아동의 감정을 공감하는 지지적인 훈육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논리적인 방법으로 아동의 행동을 설명하고 지도하는 행동통제적인 훈육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는 Model 2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정서지지와 가족불안은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투입한 어머니의 훈육방식 중 지지적 훈육과 행동통제적 훈육은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은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의 전체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대한 각 변인의 변량을 살펴보면, 이는 각 변인들이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들 중에서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가족의 정서적 환경이었으며 특히, 가족의 정서표현이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학령기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표준화된 β		
		Model 1	Model 2	Model 3
아동의 문제 중심적 대처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 별	.09**	.02	.01
	학 년	-.16***	-.06*	-.06*
	S.E.S	-.01	-.01	-.01
	가족의 정서적 환경			
	정서표현		.47***	.35***
	정서지지		.15***	.07
	가족행사 나누기		.17***	.10**
	가족불안		.08**	.04
	부모갈등		.09**	.08**
	어머니 훈육방식			
	지지적 훈육			.19***
	심리통제적 훈육			.06
	행동통제적 훈육			.19***
	ΔR^2		.430***	.053***
	R^2	.036	.465	.519

* $p<.05$, ** $p<.01$, *** $p<.001$

2)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학령기 아동의 감정폭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감정폭발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Model 1에서 아동의 성별($\beta=.25, p<.001$)과 학년($\beta=.07, p<.05$)이 아동의 감정폭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은 아동의 감정폭발을 6.7%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이 4학년 아동보다 감정폭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는 아동의 성별($\beta=.26, p<.001$), 아동의 학년($\beta=.07, p<.05$), 정서표현($\beta=.08, p<.05$), 정서지지($\beta=-.17, p<.001$), 가족불안($\beta=.16, p<.001$), 부모갈등($\beta=.32, p<.001$)이 아동의 감정폭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아동의 감정폭발을 29.5% 설명해주고 있다. 즉, 남아보다 여아가, 4학년보다 6학년이, 가족 간의 정서표현이 많을수록, 가족 간의 정서적 지지가 낮을수록, 가족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아동 앞에서 보이는 부모 간 갈등이 높을수록 아동이 감정폭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는 아동의 성별($\beta=.28, p<.001$), 학년($\beta=.06, p<.05$), 정서지지($\beta=-.11, p<.01$), 가족행사 나누기($\beta=-.08, p<.05$), 가족불안($\beta=.10, p<.01$), 부모갈등($\beta=.22, p<.001$), 심리통제적 훈육($\beta=.29, p<.001$)이 아동의 감정폭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아동의 감정폭발을 35.1% 설명해주고 있다. 즉, 남아보다 여아가, 4학년보다 6학년이, 가족 간에 정서지지가 낮을수록, 가족과의 여가활동이나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을수록, 가족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아동 앞에서 보이는 부모간 갈등이 높을수록, 양육자의 감정에 따라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심리통제적인 훈육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의 감정폭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는 Model 2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정서표현은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아동의 감정폭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투입한 어머니의 훈육방식 중 심리통제적 훈육은 아동의 감정폭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은 아동의 감정폭발의 전체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감정폭발에 대한 각 변인의 변량을 살펴보면, 모든 변인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들 중에서 아동의 감정폭발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가족의 정서적 환경이었으며, 특히, 부모갈등이 아동의 감정폭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학령기 아동의 감정 폭발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표준화된 β		
		Model 1	Model 2	Model 3
아동의 감정 폭발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 별	.25***	.26***	.28***
	학 년	.07*	.07*	.06*
	S.E.S	.01	.01	-.01
	가족의 정서적 환경			
	정서표현		.08*	.05
	정서지지		-.17***	-.11**
	가족행사 나누기		-.02	-.08*
	가족불안		.16**	.10**
	부모갈등		.32**	.22***
	어머니 훈육방식			
	지지적 훈육			.08
	심리통제적 훈육			.29***
	행동통제적 훈육			.02
	ΔR^2		.229***	.056***
R^2	.067	.295	.351	

* $p < .05$, ** $p < .01$, *** $p < .001$

3)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학령기 아동의 공격적 표현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공격적 표현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Model 1에서는 아동의 성별과 학년 및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아동의 공격적 표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정서적 환경을 추가한 Model 2에서는 정서지지($\beta = -.20$, $p < .001$), 가족불안($\beta = .11$, $p < .01$), 부모갈등($\beta = .27$, $p < .001$)이 아동의 공격적 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아동의 공격적 표현을 17.5% 설명해주고 있다. 즉, 가족 간의 정서적인 지지가 낮고, 가족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아동 앞에서 보이는 부모 간 갈등이 높을수록 아동의 공격적 표현이 더 높게 나타났다.

Model 3에서는 아동의 성별($\beta = .07$, $p < .05$), 정서지지($\beta = -.16$, $p < .01$), 부모갈등($\beta = .22$, $p < .001$), 심리통제적 훈육($\beta = .18$, $p < .001$)이 아동의 공격적 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아동의 공격적 표현을 19.8% 설명해주고 있다. 즉, 남아보다 여아가, 가족 간에 정서적인 지지가 낮을수록, 아동 앞에서 보이는 부모간 갈등이 높을수록, 양육자의 감정에 따라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심리통제적 훈육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의 공격적 표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는 Model 1과 2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아동의 성별이 공격적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Model 2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가족불안은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아동의 공격적 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한 어머니의 훈육방식 중 심리통제적 훈육은 아동의 공격적 표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공격적 표현에 대한 각 변인의 변량을 살펴보면 아동의 성별과 연령 및 사회경제적 지위(S.E.S)를 제외한 모든 변인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들 중에서 아동의 공격적 표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가족의 정서적 환경이었으며, 부모갈등이 아동의 공격적 표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학령기 아동의 공격적 표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표준화된 β		
		Model 1	Model 2	Model 3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 별	.04	.05	.07*
	학 년	.02	.02	.02
	S.E.S	-.01	-.02	-.04
	가족의 정서적 환경			
아동의 공격적 표현	정서표현		.06	.05
	정서지지		-.20***	-.16**
	가족행사 나누기		.04	.01
	가족불안		.11**	.07
	부모갈등		.27***	.22***
	어머니 훈육방식			
	지지적 훈육			-.01
	심리통제적 훈육			.18***
	행동통제적 훈육			.06
	ΔR^2		.173***	.022***
	R^2	.002	.175	.198

* $p < .05$, ** $p < .01$, *** $p < .001$

4)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학령기 아동의 회피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회피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Model 1에서 아동의 학년($\beta = .27$, $p < .001$)이 아동의 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은 아동의 회피를 7.8%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초등학교 6학년이 4학년보다 정서를 회피하는 것으로 조절하려는 특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Model 2에서는 아동의 성별($\beta = .09$, $p < .01$)과 학년($\beta = .25$, $p < .001$), 정서지지($\beta = -.18$, $p < .001$), 가족 불안($\beta = .11$, $p < .01$), 부모갈등($\beta = .27$, $p < .001$)이 아동의 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아동의 회피를 26.5% 설명해주고 있다. 즉, 남아보다 여아가, 4학년보다 6학년인 경우, 가족 간의 정서적인 지지가 낮을수록, 가족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아동 앞에서 보이는 부모 간 갈등이 높을수록 아동이 정서를 회피하는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는 Model 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아동의 성별이 아동의 회피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입한 가족의 정서적 환경 중 정서지지, 가족불안, 부모갈등이 아동의 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은 아동 회피의 전체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Model 3에서는 아동의 성별($\beta=.11, p<.001$)과 학년($\beta=.25, p<.001$), 정서지지($\beta=-.13, p<.01$), 가족불안($\beta=.07, p<.05$), 부모갈등($\beta=.22, p<.001$), 심리통제적 훈육($\beta=.18, p<.001$), 행동통제적 훈육($\beta=.12, p<.01$)이 아동의 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은 아동의 회피를 29.2% 설명해주고 있다. 즉, 남아보다 여아가, 4학년보다 6학년인 경우, 가족 간 정서적인 지지가 낮을수록, 가족 간에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아동 앞에서 보이는 부모간 갈등이 높을수록, 양육자의 감정에 따라 아동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심리통제적 훈육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논리적인 방법으로 아동의 행동을 설명하고 지도하는 행동통제적 훈육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의 회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는 투입한 어머니의 훈육방식 중 심리통제적 훈육과 행동통제적 훈육은 아동의 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동의 회피에 대한 전체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이와 같이 아동의 회피에 대한 각 변인의 변량을 살펴보면, 각 변인들이 아동의 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변인들 중에서 아동의 회피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큰 변인은 가족의 정서적 환경이었다. 그리고 각 요인의 하위요인과 아동의 회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아동의 학년과 가족의 정서적 환경 중 부모갈등이 아동의 회피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하위 요인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학령기 아동의 회피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표준화된 β		
		Model 1	Model 2	Model 3
아동의 회피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 별	.07	.09**	.11***
	학 년	.27***	.25***	.25***
	S.E.S	.01	.01	-.01
	가족의 정서적 환경			
	정서표현		-.03	-.03
	정서지지		-.18***	-.13**
	가족행사 나누기		-.02	-.05
	가족불안		.11**	.07*
	부모갈등		.27***	.22***
	어머니 훈육방식			
	지지적 훈육			-.06
	심리통제적 훈육			.18***
	행동통제적 훈육			.12**
	ΔR^2		.187***	.027***
R^2	.078	.265	.292	

* $p<.05$, ** $p<.01$, *** $p<.001$

I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첫째,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학년, 정서표현, 정서지지, 가족행사 나누기, 가족불안, 부모갈등, 지지적 훈육, 행동통제적 훈육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4학년이 6학년보다, 가족 간에 정서표현이 많을수록, 정서지지가 높을수록, 가족 행사를 함께 나누는 일이 많을수록, 가족에 대한 불안이 높을수록, 부모갈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지적인 훈육방식과 행동통제적인 훈육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이 문제중심적 대처로 정서조절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감정폭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학년, 정서표현, 정서지지, 가족행사 나누기, 가족불안, 부모갈등, 심리통제적 훈육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6학년이 4학년보다, 가족 간의 정서표현이 많을수록, 가족 간의 정서지지는 낮을수록, 가족 행사를 함께 나누는 일이 적을수록, 가족에 대한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갈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심리통제적인 훈육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은 감정폭발로 정서조절을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공격적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정서지지, 가족불안, 부모갈등, 심리통제적 훈육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가족 간에 정서적인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가족에 대한 불안이 높을수록, 부모갈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심리통제적인 훈육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이 공격적 표현을 통해 정서조절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의 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학년, 정서지지, 가족불안, 부모갈등, 심리통제적 훈육, 행동통제적 훈육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6학년이 4학년보다, 가족 간에 정서 지지가 낮을수록, 가족에 대한 불안이 높을수록, 부모갈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심리통제적 훈육방식과 행동통제적 훈육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회피를 통해 정서조절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조절은 아동의 성별, 학년,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지지적 훈육방식과 행동통제적 훈육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정서적 환경의 하위변인인 정서표현은 다른 변인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 내에서의 정서표현은 표출규칙에 대한 학습상황을 제공하므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길러준다는 연구결과(Jones, Abbey, & Cumberland, 1998; Saarni, 1979)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정서표현은 아동이 어떤 정서를 어느 정도 표현하는 것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연구결과(Denham, Zoller, & Couchoud, 1994; 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정서표현을 지지해주고 수용해주는 가족의 긍정적인 정서적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Model 3에서는 Model 2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정서지지와 가족불안이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투입한 어머니의 훈육방식 중 지지적 훈육과 행동통제적 훈육은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변인들이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의 전체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애정적이면서도 일관성있게 합리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결과(임희수, 2001)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구성원들이 애정과 신뢰로써 서로의 감정표현을 수용하고 지지해주는 정서적인 환경이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을 어떻게 통제하고 훈육하는지도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돕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아동의 감정을 공감하는 훈육방식을 사용함과 동시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관성있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중 부정적 요인인 가족불안과 부모갈등이 높음에도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이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정서를 개방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며 긍정적인 대안활동을 하는 정서조절 방식을 사용하면 자녀들 또한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조절한다는 연구결과(임희수, 2001; Garner, 1995; Grych & Fincham, 1993; Eisenberg, 1996)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간의 갈등보다 부모간의 갈등 표현 방식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Barber, 1998; Grych & Fincham, 1990; 박혜영, 2007)는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며, 부부 생활에 필수불가결하게 겪는 갈등을 보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표현 방식을 선택해서 표출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불안이나 갈등 등의 부정적 정서들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한 부모는 자녀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모델이 되어 사회적 능력과 대처 기술 향상 등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지만, 갈등이 숨겨지고 해결이 되지 못할 경우 가족 내 긴장과 위협의 지속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발달을 저해하고 많은 부적응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여 갈등 상황을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부모의 자세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아동의 감정폭발 정서조절은 아동의 성별, 학년,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심리통제적 훈육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Model 3에서는 Model 2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정서표현이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아동의 감정폭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투입한 어머니의 훈육방식 중 심리통제적 훈육은 아동의 감정폭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은 아동의 감정폭발의 전체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조절(감정폭발, 공격적 표현, 회피)이 모두 어머니의 심리통제적 훈육방식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수준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선행연구(전숙영, 2007)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부정적인 행동을 보일 때 어머니가 신체적 처벌을 사용하거나, 충동적으로 자신의 감정에 따라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심리통제적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자녀의 정서조절에 직접,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아동의 정서조절에 있어 어머니 스스로의 정서조절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갖게끔 이와 관련된 어머니 성장 프로그램이나 부모

교육 등의 외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아동의 공격적 표현 정서조절은 아동의 성별, 가족의 정서지지, 부모갈등, 어머니의 심리통제적 훈육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변인들 중에서 아동의 공격적 표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가족의 정서적 환경 중 부모갈등이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모가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자녀에게 문제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모델이 되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과 대처기술을 향상시키지만, 부모가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가족 내에 지속적인 긴장을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어 더욱 빈번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권영옥, 1998). 선행연구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숨겨진 부모간의 갈등은 아동의 공격성, 감정 폭발, 품행장애, 비행 및 반사회적 행동 등의 외면적 부적응이나 우울, 불안, 사회적 고립, 위축, 회피 등의 내면적 부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권영옥 · 이정덕, 1999; Davies & Cummings, 1994; Grych & Fincham, 1990; Holden & Ritchie, 1991; Jouriles, Mariling & O'Leary, 1989; Long, Slater, Forehand, & Fauber, 1988)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부모갈등은 부모 당사자들 뿐 아니라 가족 관계 자체를 왜곡시키고 가족간의 유대를 파괴시켜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아동에게 느끼는 부모의 감정이나 행동을 변화시켜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현장에서 아동의 문제나 부적응에 관한 직접적인 대처방식의 개입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더불어 부모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문제해결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다루는 방식을 선택하여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입하여야 함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동의 공격적 표현에 있어서 성별에 의한 영향력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 훈육방식 등 모든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적 표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accoby & Jacklin, 1974; Offord et al, 1987). 그러나 최근에는 공격성의 발달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점차 연구자들은 단순한 아동의 성별이나 연령에 의한 영향보다는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여러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공격성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들(이동희, 2004; 황정희, 1997)이 본 연구의 결과를 입증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환경과의 관계에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가족환경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실제로도 아동의 공격적 행동을 일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학년에 따라 아동의 공격적 표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유아기나 아동기를 비교하거나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비교한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이전에는 아동이 화가 나거나 속상한 감정을 표현할 때 상대방에게 무조건 화를 내거나 때리는 등의 무조건적인 공격적 행동을 보일 수 있지만, 학령기 아동은 무조건적인 공격적 표현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언어적인 공격이나 따돌림, 무시 등의 간접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에 4학년과 6학년 아동사이에 공격적 표현에 대한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회피 정서조절은 아동의 성별, 학년, 가족의 정서지지, 가족불안, 부모갈등, 어머니의 심리통제적 훈육방식과 행동통제적 훈육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이 4학년 아동에 비해 회피를 통해 정서조절을 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6학년은 발달특성상 사춘기에 진입하는 시기로서 정서적으로 민감해져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하려 노력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회피하는 특성을 더 높게 나타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Model 3에서는 Model 2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변인의 설명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Model 3에서 투입한 어머니의 훈육방식 중 심리통제적 훈육과 행동통제적 훈육이 아동의 회피에 대한 전체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아동을 대하며 아동의 행동을 억제시키려고 하는 경우, 자녀들이 회피적인 정서조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임희수, 2001)와 일치한다. 즉, 이는 어머니의 양가적인 태도가 자녀의 정서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지지적·애정적이면서도 아동의 부정적인 행동에는 일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조절에는 가족의 정서표현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감정폭발, 공격적 표현, 회피에는 부모갈등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에서 아동의 정서표현을 지지해주고 수용해주는 환경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낸 반면, 부모간에 겪는 갈등은 부모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자체를 왜곡시키고 가족 간의 유대를 파괴시켜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렇게 가족 내에서 필수불가결하게 겪게 되는 불안이나 갈등 등의 부정적 정서들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자녀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모델이 되어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현장에서 아동의 문제나 부적응에 관한 직접적인 대처방식의 개입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더불어 부모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문제해결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다루는 방식을 선택하여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입하여야 함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동이 부정적인 행동을 보일 때 어머니가 신체적 체벌을 사용하거나, 충동적으로 자신의 감정에 따라 아동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자녀의 정서조절에 직접·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머니 스스로의 정서조절이 상당히 중요하며,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갖게끔 이와 관련된 어머니 성장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등의 외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갈등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부

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력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부모갈등의 어느 정도 수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 연구에서는 살펴보지 않아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부모갈등의 정도와 더불어 부모의 갈등 유형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갈등 수준과 유형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설명력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내의 전반적인 정서적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아동이 어머니로부터 직접 받는 훈육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사이를 매개하는 보호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부정적인 훈육방식을 개입할 수 있는 기제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는 가족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족구성원들 간의 정서적인 교류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에서는 가족 환경 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교사 및 또래 집단 등의 다양한 환경 변인들과 아동의 생물학적인 변인 등의 거시체계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훈육방식 중 어머니의 훈육방식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이 아동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훈육방식을 추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가족의 정서적 환경과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나 같은 학령후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이것을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아동의 연령 차이를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의 아동으로 확대하여 가족의 정서적 환경과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영옥(1998).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행동문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순(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축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 및 사회성과의 관계. 남서울대학교 디지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윤희(2007). 가정환경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란(2004).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자녀학대 및 자녀의 우울.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683-690.
- 김지현(2003). 3세 및 5세 유아의 또래 갈등 상황에 따른 정서표현 언어와 정서표현 행동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이순형(2004). 3세 및 5세 유아의 또래 갈등 상황에 따른 정서표현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2(4), 29-43.
- 문용린(1996). 정서지능의 의미와 중요성. 서울: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육영회.
- 박선주(2007). 부모간의 갈등과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숙(2007). 부모의 훈육방식과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영(2007).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방식 및 부모갈등과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정(2000).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반응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혜숙(2007). 아동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 및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순임(2000).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현경(1998).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희진·민혜영(200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미래유아 교육학회지, 13(2), 277-297.
- 이경남(200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2), 97-110.
- 이경임(1996). 인지적·행동적 자기통제훈련이 아동의 자기통제능력, 과제수행능력 및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동희(2004). 유아의 기질, 부모간 갈등 및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미(2004). 부모의 갈등해결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희(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2002). 과제상황별 아동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정서대처전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희·이춘재(2003).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심리사회적 적응.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9, 83-117.
- 임형아(2004). 부부갈등과 부모역할 만족도가 유아의 공격성과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희수(2001).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숙영(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 및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과 자기 통제력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69-179.
- 정원주·윤종희(1997). 아동기 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그 증상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6), 87-99.

- 진미화(2007).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순옥(2003).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1994).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최지현(2001).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기통제와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민(2005). 부모의 정서표현 및 유아에 대한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유진(2005).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공격성 및 또래 관계의 질. 한국아동학회지, 26(4), 85-100.
- 황정희(1997). 유아의 공격행동과 관련변인들과의 관계연구: 유아의 기질, 가족 스트레스, 부모역할 만족도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ber, B. K.(1998). Interparental conflict styles and youth problem behaviors: A two-sample replication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1), 119-132.
- Campos, J. J., Campos, R. G., & Barrett, K. C.(1989). Emergent themes in the study of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94-402.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 J. B.(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Ed.).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ummings, E. M., Simpson, K. S., & Wilson, A.(1993). Children's responses to interadult anger as a function of information about resolu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6), 978-985.
- Davies, P. T., & Cummings, E. M.(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A.(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928-936.
- Dunsmore, J. C., & Karn, M. A.(2001). Mothers' beliefs about feelings and children's emotional understanding.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1), 117-138.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isenberg, N., & Fabes, R. A.(1994). Children's enacted interpersonal strategies: Their relations to social behavior and negative emotionality. *Merrill-Palmer Quarterly*, 40, 212-232.
-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1993).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5), 1418-1438.
- Eisenberg, N., Fabes, N. A., & Murphy, B. C.(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5), 2227-2247.
- Fabes, R. A., & Eisenberg, N.(1992). Young children's coping with interpersonal anger. *Child Development*, 63(1), 116-128.

- Fox, N. A., & Bavidson, R. J.(1988). Patterns of brain electrical activity during facial signs of emotion in 10-month old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4(2), 230-236.
- Garner, P. W.(1995). Toddlers' emotion regulation behaviors: The role of social context and family expressivenes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6(4), 417-430.
- Gonzales, N. A., Tein, J., Sandler, I. N., & Friedman, R. J.(2001). On the limits of coping: Interaction between stress and coping for inner-city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6(4), 372-395.
- Grych, J. H. & Fincham, F. D.(1993). Children's appraisals of marital conflict: Initial investigations of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64(1), 215-230.
- Grych, J. H. & Fincham, F. D.(1990).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Testing the mediational role of appraisals in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71(6), 1648-1652.
- Grych, J. H., Harold, G. T., & Miles, C. J.(2003). A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appraisals as mediators of the link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4(4), 1176-1193.
- Harter, S.(1990). Identity and self development. In S. Feldman & G. Elliott(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pp. 352-387)*.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wley, P. H., & Vaughn, B. E.(2003). Aggression and adaptation: The bright side to bad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9, 239-244.
- Holden, G. W., & Ritchie, K. L.(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 rearing, a child behavior problem: evidence from battered women. *Child Development*, 62(2), 311-327.
- Jenkins, J., Simpson, A., Dunn, J., & O'Connor, T. G.(2005). Mutual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Shared and nonshared family risks. *Child Development*, 76(1), 24-39.
- Jones, D. C., Abbey, B. B., & Cumberland, A.(1998). The development of display rule knowledge: Linkages with family expressiveness and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69(4), 1209-1222.
- Jouriles, E. N., Mariling, J., & O'Leary, K. D.(1989). Interspousal aggression, marital discord, and problem.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3), 453-455.
- Kendall, P. C., & Wilcox, L. E.(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al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47(6), 1020-1029.
- Kopp, C. B.(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43-354.
- Lindsey, E. W., & Colwell, M. J.(2003). Preschooler's emotional competence: Links to pretend and physical play. *Child Study Journal*, 33(1), 39-52.
- Long, N., Slater, E., Forehand, R., & Fauber, R.(1988). Continued high or reduced interparental conflict following divorce: Relation to young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3), 467-469.
- Maccoby, E., & Jacklin, C.(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Mischel, W., & Mischel, H. N.(1983).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Knowledge of self-control strategies. *Child Development*, 54(3), 603-619.
- Offord, D. R., Boyle, M. H., Szatmari, P., Rae Grant, J. I., Links, P. S., Cadman, D. T., Byles, J. A., Crawford, J. W., Blum, H. M., Byrne, C., Thomas, H., & Woodward, C. A.(1987). Ontario child health study: II. Six-month prevalence of disorder and rates of service utiliz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832-836.
- Pintrich, P. R.(1989). The dynamic interplay of student motivation and cognition in the college classroom. In M. L. Maehr & P. R. Pintrich(Eds.), *Advances in motivation and achievement*(Vol. 6, pp. 117-160). Greenwich CT: JAI Press.
- Porter, B., & O'Leary, R. E.(1980). Marital discord and childhoo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8(3), 287-295.
- Raffaelli, M., Crockett, L. J., & Shen, Y.(2005). Developmental stability and change in self-regulation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6(1), 54-75.
- Saarni, C.(1979). Children's understanding of display rules for expressive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15(4), 424-429.
- Tavitian, M. L., Lubiner, J. L., Green, L., Grebstein, L. C., & Velicer, W. F.(1987). Dimensions of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2), 191-204.
- Zimmerman, B. J., & Martinez-Pons, M.(1990). Perceptions of efficacy and strategy use in the regulation of learning. In D. H. Schunk & J. Meece(Eds.), *Student perceptions in the classroom: Causes and consequences*(pp. 185-207). Hilldale. NJ: Erlbaum.

가족의 정서적 환경과 어머니의 훈육방식 및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채 영 문(혜전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정서조절 능력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를 조절할 줄 알고, 상대방의 사고·감정·의도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기초적 수준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요인이다. 아동은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 경험의 폭이 넓어지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기본적인 인간의 정서를 인식하고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보다 유능해져간다. 이는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정서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성에 따라서 정서조절능력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보고되는데 여아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감정발산능력이 우수한 반면 남아는 공격적 표현과 회피 및 왜곡의 경향이 높고, 성장과 더불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은 한층 발달한다는 보고들은 정서조절능력 연구에서 성차와 연령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발달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 가운데 정서조절능력과의 관련성이 보고되는 변인 중 가족의 정서적 환경과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아동의 정서조절 변인임을 고려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사료된다.

또한 사춘기가 도래하면서 아동이 경험하는 정서조절능력을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정적 정서표현과 긍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허용성이나 문제를 대하는 부모 행동의 모델링을 비롯해 가족의 정서적 환경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 어머니의 정서상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표현이나 양육행동을 결정하고 가정의 정서분위기를 좌우하게 되며 민감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정서적 안정, 사회적 능력, 독립심을 기르는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특성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한 반드시 분석대상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정서조절능력과 관련성이 검증된 다양한 사회인구학적변인과 더불어 정서표현에 대한 가족의 정서적 지지정도 및 어머니의 훈육방식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있어 정서조절이 안되면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에 대한 접근은 매우 의미 있는 관점이라고 사료된다.

그 결과 아동의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조절은 아동의 성별, 학년,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지지적 훈육방식과 행동통제적 훈육방식이, 아동의 감정폭발 정서조절은 아동의 성별, 학년, 가족의

정서적 환경, 어머니의 심리통제적 훈육방식이, 아동의 공격적 표현 정서조절은 아동의 성별, 가족의 정서지지, 부모갈등, 어머니의 심리통제적 훈육방식이, 회피 정서조절은 아동의 성별, 학년, 가족의 정서지지, 가족불안, 부모갈등, 어머니의 심리통제적 훈육방식과 행동통제적 훈육방식이 영향력을 보이는 변인임을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에서 아동의 정서를 지지해주고 수용해주는 환경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밝혀내고 가족 내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들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자녀에게 문제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모델이 되어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는 선행연구와 달리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조절능력의 모든 하위변인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런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핵가족화에 따른 부부중심의 가족관계나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의 변화는 어머니의 훈육방식 못지 않게 아버지의 역할 역시 중요하고 의미 있음이 보고되고 있어 아버지 변인을 분석에 포함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학령기는 사회적 관계형성이 활발해지고 사회적 능력이 중요시되는 시기로 부모이외에 변인에 고려가 필요하다. 가정에서 형제나 또래 그리고 교사변인 등 다양한 변인들이 아동의 정서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